

##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sup>+</sup>

이 영 심\* (성균관대 건축학과 연구교수)

이 상 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동포 즉 고려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이며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40여년에 이른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1937년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통하여 대거 이주한 대표적인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이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와 주생활을 탐색하여 고려인들의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토속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사를 정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 30일~2월 11일 사이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고려인들의 거주비율이 높은 타쉬켄트와 사마르칸트, 부하라 지역 등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 6가구였다. 방문한 각각의 가옥에 대한 실측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였으며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주택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고려인의 주거는 학교와 군인 바라크 등의 임시 숙소와 땅을 파서 만든 토굴 등을 거쳐 1938년 콜호즈가 조직된 이후 흙벽돌 주택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구들이 있는 초기의 고려인주택은 1960년대 이후 변형되거나 점차 사라지고 있다. 둘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택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분류 조사하여 각 주택유형별로 주택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고려인의 주생활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주택과 외형은 비슷하나 생활내용면에서는 타민족과 구별되는 고려인만의 특성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구들이었다. 또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고려인들이 김치와 장 등을 직접 담고 있었으며 추석, 한식, 단오 등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인의 생활 속에 지속되고 있는 전통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우즈베크인을 비롯한 타민족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3년도 BK21사업 핵심분야 사업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